

2013년 10월 보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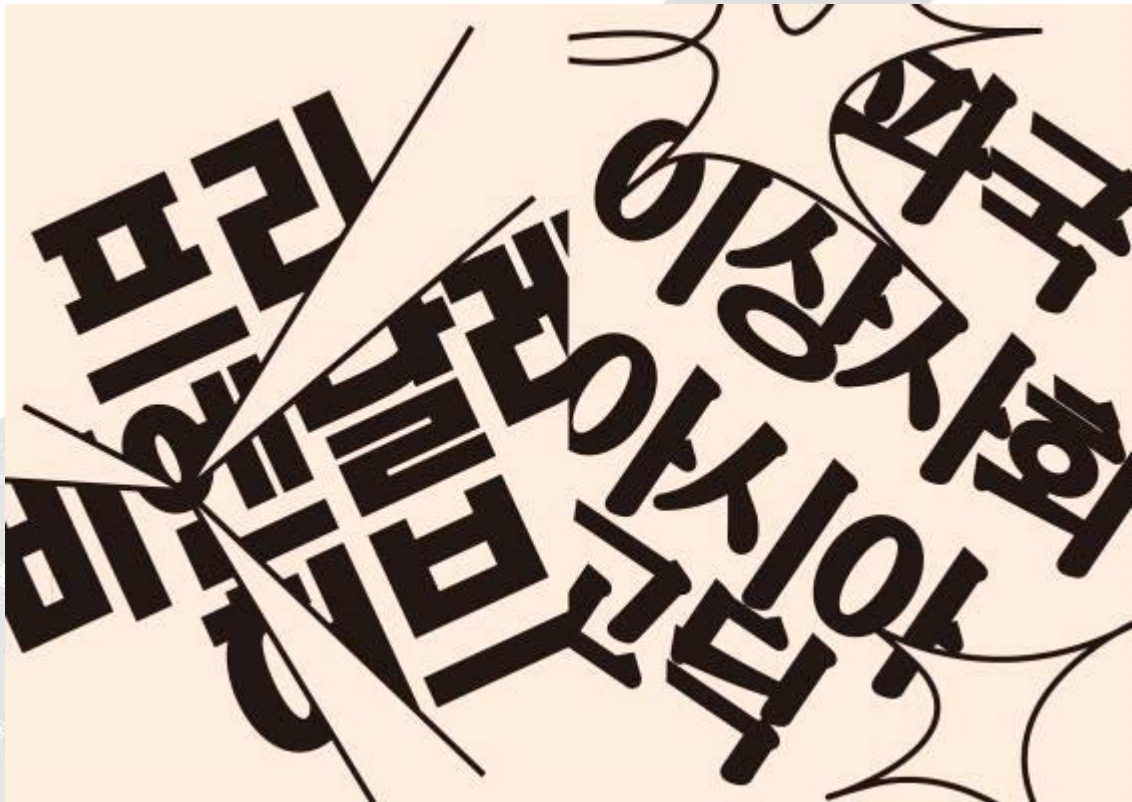
이 보도자료는 2013년 10월 25일 오전 9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미디어시티서울 2014’ 프리비엔날레 프로그램 파국, 이상사회, 아시아 고독을 논하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워크숍 ⇄ 전시] 프리비엔날레 프로그램



미디어시티서울 2014 프리비엔날레는 미디어시티서울 2014의 주제와 구상이 발전하는 과정을 관객과 공유하고자 한다. 프리비엔날레는 석학의 강연, 자유로운 주제 토론,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영화상영, 비엔날레 소문내기, 작은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일련의 사전 행사를 통해서,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아시아’의 상상, 파국과 자본주의,



정치적 열정, 사회적 미디어 등의 비엔날레 키워드에 다가간다. www.mediacityseoul.kr을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 이 전 과정을 매개하고 풍부하게 한다.

프로그램 02 워크숍: 파국, 이상사회, 아시아 고딕

- 운영일자: 2013년 11월 1일(금), 11월 9일(토), 11월 11일(월), 11월 29일(금), 12월 3일(화)
- 운영시간: 매 회 오후 7시
- 운영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사무동 1층 대회의실,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 참여자: 김주현, 우희종, 안은미, 임근준, 노재운, 문강형준, 조선령, 배영환, 파트타임스위트, 서동진, 박찬경

프로그램 03 전시: 프리비엔날레 허브

- 전시기간: 2013년 11월 5일 - 12월 15일 (총 36일)
- 운영시간: 오전10시 - 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크리스털 상영관

미디어시티서울2014는 프리비엔날레로 열렸던 일련의 강연과 토론 <프로그램 01 대화: 예술의 보편성과 '동아시아'>를 발전시켜, 워크숍과 전시를 개최한다. 워크숍과 전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① '동아시아' 브리콜라주

동아시아를 비균질적이며 변화하는 사건의 연결로 파악하기. 아시아를 '대상'에서 해방해 복잡화하기.

예를 들어, 청일전쟁과 '동양화'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불교문화는 생태위기에 어떤 지혜를 던져줄 수 있을까?

② '아시아 고딕'

지배적 역사서술에서 누락된 고독한 유령을 불러와 그들의 한 맺힌 말을 경청하기. '귀신 정치학'을 구상하기. 제주, 대만, 북한, 만주, 류큐와 사할린 남녀노소 귀신들의 컨퍼런스.

③ 파국과 이상사회

파국과 일상생활의 괴리, 파국 미래학과 원자력의 통제불능 속에서 개인을 생각하기. 새로운 주체에 대한 기대와 정치적 무관심 사이에서 개인의 크기, 예술의 힘은 무엇일까? '약한 예술'이 정치적 과욕을 전복하는 장소, 권력이 실패하는 순간을 돌아보기. 유토피아사상의 아름다운 순진성을 발견하기.

④ 뉴미디어와 오래된 사회

전기와 전화가 없는 곳, 인터넷이 통제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영상문화가 홈쇼핑과 같은 것이 되는 곳, 미디어를 물처럼 소비하는 곳이 있다. 이 거대한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디아스포라와 미디어, 대포폰과 범죄, 북한과 트위터, 쿠르디스탄과 휴대폰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프로그램 02 워크숍: 파국, 이상사회, 아시아 고딕

이 워크숍은, 작가의 특정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둘러싸고 해당 분야의 학자, 평론가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이다. 간단한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일시	주제	장소	참여자
2013.11.01(금) 오후 7시	불교생태주의, 생명윤리와 예술 (주제 ①, ③)	서울시립미술관 사무동 1층 회의실	김주현 + 우희중
2013.11.09(토) 오후 7시	바리데기 저승편 (주제 ②, ③)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안은미 + 이정우
2013.11.11(월) 오후 7시	파국의 지형학 (주제 ③, ④)		노재운 + 문강형준 + 조선 령
2013.11.29(금) 오후 7시	동학의 이상사회 상상 (주제 ①, ②, ③)		배영환 + 박찬경
2013.12.03(화) 오후 7시	금융자본과 일상의 파국 (주제 ③)		파트타임스위트 + 서동진

| 참여신청

www.mediacityseoul.kr → 프로그램 02워크숍 → 참여신청

| 참여자 소개

■ 김주현

김주현은 단위가 되는 개체들이 일련의 법칙으로 결합되어 발생하는 형태와 구조를 조각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미술가이다. 프랙탈, 카오스, 복잡성과 같은 현대과학의 사유를 조각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현대 미술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2005년 서울 평창동 김종영 미술관에서 개최한 개인전 '확장형 조각'으로 '올해의 예술상'과 '김세중 청년조각상'을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예술과 과학의 만남』(2005)과 『누구나 꾸는 꿈』(2005)이 있다.

■ 우희중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번역학교실 교수로 있으며, 조계종 불교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대한 5월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에 앞서 가진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변형 프리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정부의 쇠고기수입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여론을 일깨웠다.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2011), 『학문간 경계를 넘어』(2011),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2010), 『생명과학과 선』(2006) 등이 있다.



■ 안은미

1988년 안은미 컴퍼니를 창단했으며 주요 작품으로 <사막에서 온 편지>, <달거리>, <무지개다방>, <하늘고추>, <let's go>,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등을 안무했다. 2000 - 2003년 대구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2008 -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술감독을 역임하였고 2009년 제1회 백남준 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을 받았다

■ 임근준 AKA 이정우

미술·디자인 평론가, DT 네트워크 발기인. 아트선재센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계간 『공예와 문화』 편집장, 『한국미술연구소/시공아트』 편집장, 그리고 월간 『아트인컬처』 편집장 등을 역임했다. 『크레이지 아트, 메이드 인 코리아』 (2006), 『에스케이모마 하이라이트』 (2009), 『이것이 현대적 미술』 (2009) 등이 대표 저작이고, 2013년 11월 『현대미술의 탈출구: 좀비 모던 시대의 예술 생존법』 (가제)을 출간할 예정이다.

■ 노재운

비말리키넷(vimalaki.net), 애기봉프로젝트(Aegipeak), 충알을 물어라!(Bite the Bullet!), 버려진(God4saken) 등 웹 프로젝트로 대중에게 친숙한 노재운 작가는 인사미술공간, 대안공간 풀, 갤러리 플랜트,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플라토, 뉴뮤지엄, 제6회 광주비엔날레, 2012 부산비엔날레 등 미술기관에서 열린 여러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C12픽처스의 대표이다.

■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과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텍스트를 분석하며 한국사회의 작동방식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연구자, 번역가,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문화/과학』, 『문학동네』, 『경향 아티클』, 『컨템포러리 아트 저널』 등에 문화 비평을 써왔다. 저서로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2012), 『과학의 지형학』 (2011), 『언어를 잘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2009), 『아이돌』 (공저, 2011), 역서로 『광신』 (2013), 『권력을 이긴 사람들』 (2009), 『루이비통이 된 푸코?』 (공역, 2012)가 있다.

■ 조선령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대안공간 풀 객원 큐레이터 및 운영위원, 백남준 아트센터 학예팀장을 역임했으며, “폐락의 교환가치”, “일상의 역사”, “기념비적인 여행”, “카타스트로폴로지”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박사논문 「라캉의 근본환상 개념과 예술이론」을 비롯하여 「기계의 목소리 ; 노이즈 아트의 미학에 관하여」, 「동시대 비디오 아트의 ‘시네마틱한’ 특성에 관하여」 등의 논문이 있으며 저서로는 「라캉과 미술」 (2011)이 있다. 현재 독립 큐레이터이자 미술이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명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 배영환

미술관, 갤러리, 국제 비엔날레와 공공미술의 현장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영환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유행가”, “남자의 길”, “불면증” 시리즈 등 전시장과 현장을 통해 예리한 사회문화적 의식과 해석을 보여주었으며, 무료급식소와 보건소 정보를 담은 수첩을 노숙인들에게 제공한 “노숙자수첩 프로젝트”, “갯길 프로젝트”, 청각장애 학생들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대형벽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과 서울맹학교 학생과 함께 제작한 벽화 “점자-만지는 글, 아름다운 기억”, 상대적으로 문화적 기반 시설이 미비한 산간지역이나 문화소외지구에서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도서관을 보급하는 "도서관 프로젝트" 등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공공미술을 진행함으로써 대안적인 공공미술의 영역을 개척해 왔다. "오토누미나"(2010) 개인전 이후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문제에 다가가는 변화를 보이는 전통문화를 해석하는 일련의 신작을 발표했다. 플라토에서 개인전 "유행가-엘리제를 위하여"(2012)을 가진 후, 현재 "추상동사" 시리즈와 "후쿠시마의 바람" 등의 새로운 주제로 활발한 국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박찬경

미디어시티서울 2014 예술감독

■ 파트타임스위트

파트타임스위트는 2009년 멤버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기반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모순과 결핍으로 가득찬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배반의 방식들을 모색하며 작업해 오고 있다. 2009년 충청로 건물 지하 - 광화문 공터 - 종로5가 건물 옥상에서 세 차례의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What should I do to live in your life?"(샤르자 아트 파운데이션, 샤르자, 아랍에미레이트, 2012), "플레이타임"(문화역서울284, 2012), "Rendez-vous 13"(IAC, 리옹, 프랑스, 2013)전 등에 참가했다.

■ 서동진

현재 계원디자인예술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당비의 생각」 기획주관을 맡고 있다. 계간 「리뷰」 편집장, 「당대비평」 편집위원을 지냈고, 대안청소년센터인 하자센터 창립 멤버이다. 자본주의와 문화의 관계를 묻고 공부를 하다 디자인문화에 관심을 갖고 틈틈이 글을 쓰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인 '디자인플러스'에 "엘리스"라는 생뚱맞은 필명으로 글을 연재하기도 하였다. 디자인, 문화, 정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서 비판적인 디자인문화연구를 조직할 수 있는 담론의 씨앗을 찾아보려 애쓰고 있다. 저서로는 『속물과 잉여』(공저, 2013), 『지금 여기의 진보』(공저, 2012), 『록, 젊음의 반란』(2010), 『디자인 멜랑콜리아』(2009) 등이 있다.

프로그램 03전시: 프리비엔날레 허브

‘프리비엔날레 허브’는, 프리비엔날레 다른 행사와 대구를 이루는 ‘예술+지식’ 전시로 위의 주제를 들춰보고, 생각하고, 토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북카페이며 작은 극장이다. 전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전시기간 2013년 11월 5일 - 12월 15일 (총 36일)
- 운영시간 화요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 전시기획 박찬경
- 전시디자인 권용주, 이수성
- 전시구성

도	서	『Tokyo 1955-1970: A New Avant-Garde, MOMA』,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황호덕 이상현 편, 박문사』, 『민중과 유토피아, 조정달 저, 역사비평사』 외 주제에 관련된 도서 100여권
---	---	---

작가자료	김수남, 나이트 마사토시(Naito Masatoshi), 바심 막디(Basim Magdy), 닐바 귀레쉬(Nilbar Güreş), 토모코 요네다(Tomoko Yoneda), 유이치로 타무라(Yuichiro Tamura), 야오 주이 청(Yao Jui-Chung), 제임스 T. 홍(James T. Hong) 외 작가의 도록, DVD, 온라인 링크, 포트폴리오.
작 품	김실비, 김영글, 김익현, 노재운, 박창현, 배영환, 정은영

•영화상영

김기영, 신상옥,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의 영화

상영기간	2013년 11월 5일 - 12월 15일 (매주 월요일 휴관)
상영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크리스털 상영관
공동기획	한국영상자료원
협력후원	분도출판사

•영화상영 일정

11월 5일 - 김기영	11:00	<고려장> 1963년, 110분, DVD
11월 24일 감독		출연: 김진규, 주중녀, 김보애, 김동원 기아에 허덕이는 화전민들의 마을. 원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미신'에 얽매어 사는 이 마을에는 어느덧 나이 70세면 산채로 엮어다 버리는 폐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한 아들(김진규)이 어머니를 버리러 갔다가 중국에는 자신도 그렇게 똑같이 버림받을 것을 생각하고는 계율을 어기고 다시 어머니를 업고 되돌아 온다.
	13:00	<충녀> 1972년, 115분, DVD
		출연: 윤여정, 전계현, 남궁원, 김주미 <하녀>의 변주, 혹은 그 확장판. 부인(전계현)에게 짝 쥐여 사는 한 골동품 수집가(남궁원)가 호스티스 출신의 정부(윤여정)와 두 집 살림을 차리면서 두 여성의 기이한 알력다툼이 시작된다.
	15:00	<이어도> 1977년, 111분, DVD
		출연: 이화시, 김정철, 박정자 관광회사 기획부장인 선우현은 제주도에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첫 선전으로 이어도에 대한 캠페인을 벌임과 동시에 이어도의 실존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이어도 탐색 관광선을 출항시킨다. 취재기자 천남석의 죽음에 책임을 느낀 선우현은 천기자의 집이 있는 작은섬 과랑도를 찾아간다.

17:00			<하녀> 1960년, 108분, DVD 출연: 김진규, 주중녀, 이은심, 엄앵란, 고선애 공장의 합창반 선생(김진규)은, 그를 사모하는 여공 객선영에게 연애편지를 받는다. 선영은 이 일로 공장에서 쫓겨나고 선영의 친구, 경희(엄앵란)는 피아노 레슨을 이유로 그에게 접근한다. 경희의 소개로 새로운 하녀(이은심)는 그의 아내(주중녀)가 친정집을 간 사이 그를 유혹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는다.
11월 26일 - 신상옥	1회/ 12:00	<천년호> 1969년, 89분, DVD 출연: 신영균, 김지수, 김혜정, 강계식 신라 진성여왕(김혜정)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김원랑(신영균)을 침소에서 유혹하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김원랑의 부인 여화(김지수)는 도성 밖으로 추방당하다 도적떼를 만나 호수에 빠져 죽는다. 뒤늦게 돌아온 김원랑은 물위에 떠 있는 여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지만 그녀의 몸에는 신라 무열왕에게 당해 몸을 잃은 천년 먹은 여우의 혼이 들어온 이후였다.	
12월 8일 감독	2회/ 15:00		
	1회/ 13:30	<백사부인> 1960년, 91분, DVD 출연: 최은희, 신성일, 한은진, 최삼 천년 묵은 백사가 인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어느 한미남 청년을 유혹한다. 하지만 백사가 준 돈이 관청에서 사라진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저런 위기를 겪으면서 둘의 사랑은 깊어가고 그들을 음해하는 일 또한 많지만 결국 둘은 사랑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2회/ 16:30		
12월 10일 - 노르베르	1회/ 12:00	<고요한 아침의 나라> 1927년, 118분, DVD 이 기록 영화는 1925년 독일 성 베네딕도회 오틸리엔 연합회 총아빠스(대수도원장)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한국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촬영한 것이다. 이 영화는 베버 신부의 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1915년, 세이텔 출판사)를 기반으로, 주로 서울과 원산, 연길 지역에서 촬영했으며, 한국의 민속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수공업과 농업, 공예 기술, 풍습, 명절, 종교 예식 등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12월 15일 트 베버	2회/ 14:00		
신부	3회/ 16:00		

미디어시티서울 2014 프리비엔날레 관련 문의

장혜진 코디네이터
미디어시티서울 2014
사무실: 02-2124-8976 (8975)
휴대폰: 010-9355-5187
이메일: jhj.mcs@gmail.com

이기모 큐레이터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
미디어시티서울 2014
사무실: 02-2124-8973
이메일: gimo@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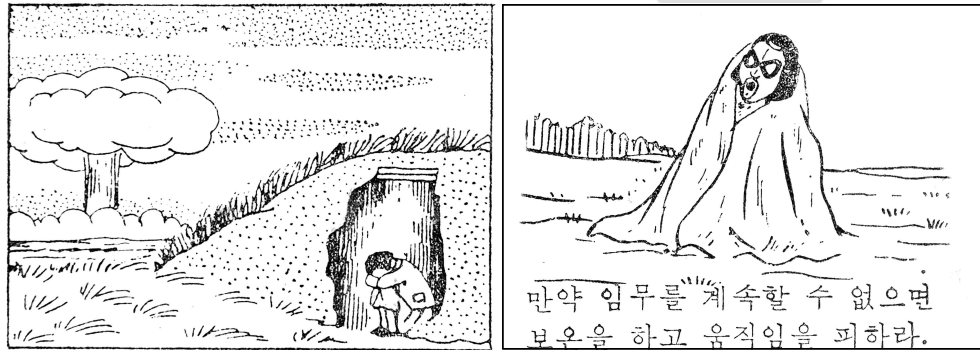
| 진행 중인 미디어시티서울 2014 프리비엔날레 프로그램

프로그램 04 엽서 프로젝트

작가의 도움을 받아, 이미지와 인용문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엽서를 제작 배포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소문처럼 떠도는 이미지와 문구는, 현대의 미디어 환경에 미디어시티서울 2014의 지문, 시그니처를 남기는 행위가 될 것이다. 마치 소문뿐인 범죄현장의 흔적을 찾아가듯이, 미디어시티서울과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통로이다.

- 운영기간 2013년 9월 - 12월
- 참여작가 김실비, 김영글, 노재운, 박창현, 배영환
- 웹페이지 www.mediacityseoul.kr/program/04/

| 워크숍, 전시 관련 이미지



김익현, <훈육(a drill)>, 가변크기, 슬라이드 프로젝션, 2012



야오 주이 청 (Yao Jui-Chung), *LongLongLive*, Single-channel video, colorful, sound, 7'30", 2013



정은영, <애꾸(The One Eyed)> 중 이미지 부분, 841 x 1189 mm, 2011